

우리나라 전래동화연구의 서지적 고찰*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Folktale Studies in Korea

유 소 영(Soyoung Yoo)**

목 차

1. 서론	3. 1 전체적 연구의 추이와 경향
1. 1 연구의 목적	3. 2 주제(분류항목)별 연구의 추이와 경향
1.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자 상황
1.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4. 결론
2. 전래동화의 가치와 용도	
3. 전래동화연구의 분석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연구의 규모와 정도를 조감하고 연구의 주제, 연구방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연구문헌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생산된 전래동화연구문헌 총 263건을 SA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래동화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생산, 1990년대 중반이후 활성화되어 연구테마도 다양해졌다. 연구문헌은 전래동화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와 전래동화를 다른 용도에 이용하려는 연구로 대별되었다. 분석연구는 문학작품의 구성요소로서의 사건, 인물, 테마 등의 분석, 심리분석, 가치관분석, 국외 전래동화와의 비교분석 등이 주종을 이루고 이용을 위한 연구는 언어교육자료로의 이용, 삽화, 애니메이션, 전통문양, 복식, 테마공원 등 시각화를 위한 연구, 등이다. 그 외에 설화의 동화화연구,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조사연구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ABSTRACTS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folktale studies in Korea by Soyoung Yoo This study is aimed primarily at taking a view of the scope and depth of folktale studies in Korea and analysing their subjects study and directions. By doing so,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can be of help to users of those studies. The researcher collected all the studies in this field since 1945 and analysed them through SAS program. Thus, the researcher found the studies on Korean folktales started in late 1960's and flourished and diversified in the middle of the 1990s. The researcher divided the collected materials into two categories, i.e., the study materials which focused on folktales themselves and studies for the exploration of applications of folktales for other purposes. Former analytical study on folktale study themselves is shown to be composed of events, characters, themes and psychological as well as value analysis. there are some comparative studies with folktales of other countries. Latter studies show that the studies are mostly for language educational purpose. Furthermore, they are for illustration, animation, traditional design, costumes studies and theme parks. There are some other studies.

키워드: 전래동화연구, 옛이야기 연구, 민속연구

Folktale, Folktale Study, Folklore, Folklore Study, Narrative Study

*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soyoung@kku.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6월 15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분량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옛 이야기의 본질 및 그 활용의 양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다.

첫째 전래동화연구는 전래동화자체를 분석하는 연구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의 구성요소로서의 줄거리(사건), 인물, 배경, 테마 등의 분석에서 전래동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전래동화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응용되고 있는데 전래동화를 활용하려면 그에 앞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전제된다. 전래동화의 이용 내지 응용은 어떤 분야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러한 개발에서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가?

셋째 설화의 동화화 또는 재화에 대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연구의 본래의 의미는 우리 나라 전래동화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인 혹은 세부분야의 규모와 범위를 조망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러한 조망을 바탕으로 연구에서 소외된 부분이나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1980년대 중반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어린이 출판물이 급성장하고 전래동화 역시 다양한 이야기가 활자화되어 세상 빛을 보는가하면 같은 이야기도 다양한 장정으로 대상 연령을 달리하여 출판되기도 하였다. 전래동화 출판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도 크게 신장세를 보여서 2002년 한해에 국회도서관 석박사학위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건수만도 24편에 이르러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연구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전래동화 연구자들에게 과거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모종의 예견을 제시하는 리뷰적 서지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만큼 유용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

독일의 그림형제는 19세기초부터 그들이 사는 고장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집하였다(Brothers Grimm, Children's and household tales vol. 1. 1812; vol. 2. 1814). 우리나라에서는 1940-50년대에 이르러서 임석재 선생께서 구전설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오랜 세월 후에 전집으로 출판하였고(임석재 1988-1993) 손동인이 1960년대부터 전래 동요, 전래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설화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의 설화를 수집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또 각도별로 향토문화보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63개 단체들에서 소속 지방의 설화를 집대성하고 있다(전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3, 71).

이들은 모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자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러나 이 문자화된 자료집들은 자료집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지난 시대의 민중들의 생산품이면서도 그 후예인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80여 책이 넘는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의 대중들에게 의미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가 설화의 동화화이다. 설화의 동화화 연구는 구전 설화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의도를 잘 살려서 아름다운 동화로 구현해 내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전래동화는 그 자체가 문학작품일 뿐 아니라 교육, 미술, 음악, 영상예술, 관광상품 등의 아이디어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유산으로의 전래동화를 다방면에 유용하게 이용할 것을 계획하고 연구한다. 본 연구의 계량적 또는 분석적 조망은 초·중등교육현장에서 전래동화 활용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 밖의 여러 분야에서 전래동화가 어떻게 활용 내지 응용 될 수 있는지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명세적 안내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전래동화가 생활현장에서 어떠한 용도와 가치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전래동화작가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의 이유와 소신을 제공하여 작품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1. 2 연구의 방법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문헌을 망라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를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문제의 답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집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석 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와 학술지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통합 서지를 만들었다. 검색어는 전래동화, 옛이야기, 민담, 설화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이 통합서지목록의 학위 논문과 학술 기사를 수집하였다.

② 수집범위: 1945년 이후 발행된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945년 이전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연히 1968년 최인학교수의 석사학위논문(동화의 특질과 발전과정연구)을 시작으로 2002년에 발행된 문헌까지 35년간의 연구문헌을 수집하게 되었다.

문헌수집에서 크게 편리했던 것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원문서비스였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은 문헌도 상당수가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 법적으로 납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가 소장되어 있기를 희망했으나 실제로는 위의 3 기관의 소장자료를 고루 내려받거나 복사하여 통합서지를 만들어야 했다.

검색으로 만들어진 목록에는 내용이 중복되는 문헌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유는 과거에 학위论문을 추리고 손질하여 학술잡지에 발표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헌은 내용을

보아 중복으로 처리하여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또 검색된 자료 중에는 각주나 참고문헌이 전혀 없고 내용이 연구문헌으로 취급하기에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처음에는 단행본자료도 수집하였으나 단행본은 수적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하며 수록된 연구내용은 이미 연구논문이나 학술지 기사로 발표된 것을 묶어서 다시 출판한 것들이었으므로 제외하였다.

③ 연구 절차: 수집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기사를, 표제를 비롯하여 초록과 서문, 결론, 제언, 또는 각주와 참고문헌,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내용을 읽고 전체 문헌이 나타내는 성격의 범주와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였다.

그 기준은 우선 연구의 중심이 전래동화자체를 분석하는데 두었는가 아니면 전래동화를 다른 분야에 이용하는데 두었는가를 가름하는데 두었다. 즉 동화자체의 분석과 이용으로 나누고 전래동화자체의 분석에 무게를 둔 문헌은 다시 순수한 문학적 구성요소나 양식 등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구명하고 특징을 발견해 내려는 연구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적 용도에 합당한 특징을 찾아내려는 전제하에 전래동화를 분석한 연구문헌으로 분류하였다.

또 전래동화를 다른 분야에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문헌은 다시 2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문자 자료인 전래동화를 시각 자료화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된 문헌들과 교육자료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문헌이다.

또 다른 주목되는 범주는 구전 이야기를 문

자로 바꿔 쓰는 일, 또는 기존 문자로 된 이야기를 독자의 연령이나 기타 용도에 맞게 고쳐 쓰는 일 즉 재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필자는 이를 독립범주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범주에 들지 않는 중요한 연구테마로 전래동화에 대한 독자의 인식이나 반응을 조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연구를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래동화연구문헌의 분류기준

1 전래동화의 분석

- 1-1 순수문학적 구성요소, 양식, 등의 분석 (인물분석, 사건분석, 테마분석 등)
- 1-2 교육적 용도를 전제한 전래동화의 특성 분석(교과서수록 전래동화의 분석, 변천과정 분석 등)

2 전래동화의 이용

- 2-1 전래동화의 시각 자료화(애니메이션화, 삽화, 공예품의 문양화, 복식연구 등)
- 2-2 전래동화의 교육방안, 활용방안(전래동화를 이용한 창의성교육, 국어 및 영어교육 등)

3 재화의 문제(설화의 동화화)

4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조사

④ 분류된 문헌목록의 집계: SAS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처리하여 연대변화에 따른 각 주제 범주의 변화와 특징 및 연구자상황을 분석하였다.

1.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연구의 주제적 범위는 우리 나라 전래동화에 관한 연구에 한정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전래동화를 다룬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 전래동화를 다룬 문헌은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전래동화가 설화의 재화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설화'를 넘나들며, 때로는, 분명히 동화적 요소를 논의하고 있으면서 표제어나 초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민담이나 설화로 표기되어 있는 연구문헌들이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빠짐없이 검색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의 검색시스템의 우수성에 좌우되기도 한다. 필자는 전래동화에 관한 모든 연구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전래동화에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주제어 또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중복되는 문헌과 불필요한 문헌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설화연구문헌군에서 전래동화연구문헌을 선택해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2. 전래동화의 가치와 용도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옛이야기의 가치는 그 이야기가 가진 본래의 의도와 본질이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다면 “옛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읽는 어떤 유형의 이야기보다도 인간의 내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어린이가 처한 난관에 알맞는 해결책을 제

시한다”(Bruno Bettelheim 1975, 5 / 베텔하임 권1 p.16)고 한 Bettelheim의 말에 요약되어 있다. 이는 그가 오래동안 Chicago 대학의 정신병학자로서 혼란상태가 심한 어린이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공헌하여 명성을 얻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옛이야기가 어린이의 내면의 문제와 어린이가 처한 난관에 알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C. W. Sullivan이 *The Lion and the Unicorn*의 전래동화특집호의 편집서론에서 밝힌 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민간전승의 유산은 그 민간 그룹이 관련하여 만들어 낸 것(C. W. Sullivan 2000, v)인 만큼 인간의 내면의 문제나 난관에 처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를 위한 독서치료나 단순한 읽기 또는 쓰기 장애 교정에 관한 연구에서 전래동화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다.

널리 알려진 미국의 Cincinnati 대학의 문지센터(Literary Center 文知/文智)에서 읽기나 쓰기 장애를 치료하는 도구로 전래동화를 사용하고 있다(Alison Lurie Fall 1990, 14-18)는 보고는 전래동화가 함유하고 있는 진수가 다른 문예작품과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민간설화의 재화인 전래동화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으며 지금도 전래동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유명한 신데렐라이야기만 해도 시기, 질투, 계모에 대한 편견, 허영심,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심, 등 어린 소녀라면 마땅히 무시 해야되는 사항들이 이야기의 핵

심으로 등장하며(Lurie, Alison 1990, 14) 여성을 비하하여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역할에 묶어 두고 있다고 보는 견해(Lurie, Alison 1990, 15), 또는 전래동화의 인물 설정이 언제나 선악이 선명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사물을 흑백으로만 보는 단순논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독자들의 세련된 사고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등이다. 전래동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론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읽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런 성향의 어린이가 읽고 싶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읽는 이야기에 의미있는 내용이 있어야 노력해서 읽은 보람을 얻게 된다. 전래동화가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사람이 예기치 않았던 혹은 정의롭지 못한 역경을 만났을 때 꿈꾸니를 빼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말에 도달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Bettelheim 8) 어린이가 전래동화에서 읽어내는 이러한 의미는 물론 다른 장르의 문학에서 얼마든지 발견한다. 그러나 사서교사나 교사 또는 부모들이 읽어주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어린이는 다른 어떤 장르의 문학보다도 전래동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라고 하면 현대의 창작 동화가 아니라 전래동화를 더 많이 택한다”(Purcell-gates, Victoria 1989, 250)는 것이다. 이는 전래동화가 어떤 점에서 어린이에게 가치있는가에 답하는 것이다.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준다.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

들은 전래 동요, 또는 반복되는 구절이 풍부한 전래동화를 즐긴다. 이 어린이들은 말의 의미보다도 소리와 박자(리듬)를 즐기기 때문이다. 전래동요는 원래 노래로 부르게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 전래동화는 이 나이 또래의 어린이들이 입말로 즐길 수 있는 짧고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드물다. 서양의 전래동화들에는 같은 전래동화라도 다양한 나이의 독자들에게 맞는 형태로 재화된 것들이 많다. 우리 나라에 알려진 “Three little pigs”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Little red riding hood”과 같이 짧고 박자를 잘 살려 노래하듯 반복구절을 읽을 수 있게 만든 동화들, 또는 “Enormous turnip”같은 누적적 이야기가 그런 유형들이다. 전래동화연구자들은 설화의 동화화 또는 재화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서 동화화 또는 재화를 담당하는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이해의 초점이 이야기의 구조와 같은 좀더 복잡한 개념으로 옮겨가면 어린이들은 “콩쥐팍쥐”나 “신데렐라” 또는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선악의 대립구조에서 교훈이 뚜렷한 이야기를 선호한다. 어린이들이 이런 유형의 옛이야기에 몰입되는 이유는 많은 전래동화가 민담에서 왔고 그 민담의 형식이 인식구조가 단순한 어린이들에게 잘 맞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민담의 형식 중에는 이야기의 등장물의 선함과 악함이 분명하게 묘사되는데 이것은 Lorence Kohlberg의 도덕성 발달과정의 첫 단계(송명자 1995, 286: 장휘숙 379-382)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도덕적 이해 수준에 딱 들어맞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빠

르게 잘 이해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폭이나 깊이도 넓고 깊다.

이러한 이유에서 옛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교과서의 교재(text)로 채택하고 있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도 교사나 사서교사들의 수업교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민속과 전래동화를 주제로 하는 교육연구도 활발하여 미국문부성의 교육문헌 데이터베이스인 ERIC에는 2002년 12월 현재까지 1100여건의 연구문헌이 수록되어 있다(US DOE,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 1966-).

전래동화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주로 전래동화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유념하는 것이다. 또 개발될 여지가 있는 분야를 연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전래동화가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는 위에 지적한 바 이론적으로 상당히 정립된 용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전래동화의 용도는 전래물 또는 전래되는 무형의 문화를 포함하는 민속과 결부되어 생활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사고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주며 그 사람들의 의식주에 들어있는 수많은 도구들, 또 한 민족의 공동재산이 되는 문화로서의 예술(미술 음악 영상예술, 관공예 등)에 소재로 응용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한 서양에서는 옛이야기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또는 학문, 예술의 전 분야에서 논의되고 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철학, 법률, 공연예술, 전자적으로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인 하이퍼텍스트에서 두드러지게 응용되고 있으며 종교,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narrative theology, narrative therapy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Brain Richardson. Summer 2000, 168-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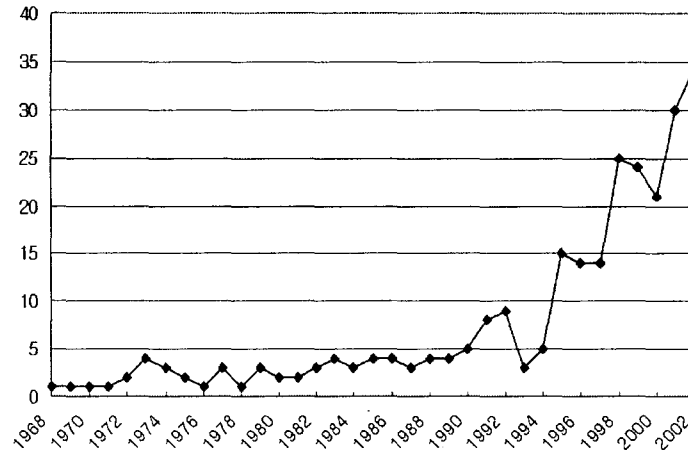
3. 전래동화연구의 분석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한 연구 방법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263건의 연구문헌 중에 학술지논문이 122건(46%), 석박사 학위논문이 141건(54%)이었다.

3. 1 전반적 연구의 추이와 경향

다음의 <그림 1>은 수집자료의 연도별 분포를 보인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래동화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서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이 모아졌으나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5년부터였다. 최근년(2002)에는 34건의 연구문헌이 발표되어 전체의 13%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었다. 백분율로 볼 때 1994년까지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전체연구의 1/3 선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전래동화의 연구는 지난 10년간에 집중되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많이 연구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는 전래동화연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 전망된다.

1) L.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의 첫 단계는 처벌과 복종지향단계이다. 즉 어린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에게 복종해야하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해야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전래동화연구문헌의 연도별 변화

다음의 <표 1>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기사를 따로 분리하여 연도별 연구의 추이를 집계한 것이다. 학위 논문은 1968년 이후 1978년에 이르는 11년간 4편의 논문이 나왔을 뿐으로 학위논문으로 전래동화가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연도도 여러 해에 이른다. 전래동화를 주제로 연구된 학위논문은 1996년에 이르기까지도 전체 연구문헌의 1/3선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생산된 논문은 전체 논문의 55%정도를 점한다. 최근년에 갑자기 학위논문주제로 전래동화가 선택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술지 기사는 1969년 이후 꾸준히 연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음을 보인다. 특히 1980년대 말경과 1990년대 말 경부터 연구문헌의 숫자가 여실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추이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위논문과는 달리 몇몇 연구자의 지속

적인 연구에 새로운 연구자가 가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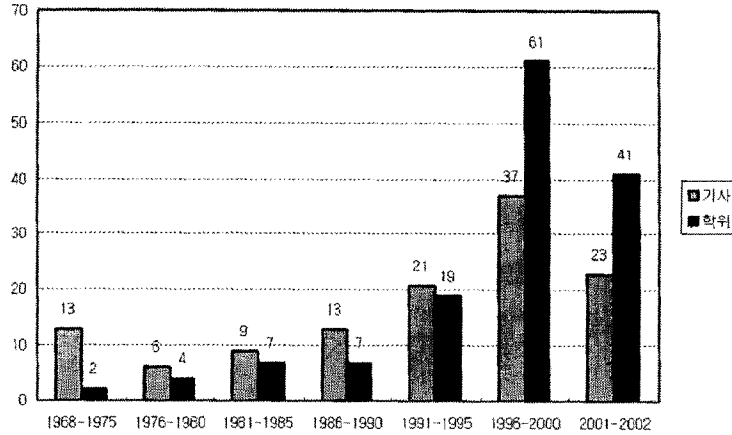
학위 논문과 학술지 기사를 비교할 때 1997년까지는 두 종류의 연구문헌의 생산이 다 같이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8년부터 많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1998년도는 우리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던 시기로 모든 성인 대상 출판물들이 위축되고 있었으나 어린이 출판물은 1990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두 배의²⁾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아동문학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학위 논문은 학술지 기사에 비하여 상승이 급하고 학술지 기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2001년과 2002년에는 학위논문이 학술지 기사의 두 배에 가깝게 생산되었다.

다음의 <그림 2>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 기사의 연도별 변화

2) 한국출판연감 2002년 자료편에 의하면 1990년도의 어린이 출판물 종수는 2,344종이었으나 1997년도에 출판된 종수는 4,538종 이었다.

<표 1> 학위논문 및 학술지기사 생산의 연도별 변화 비교표

연도	학위논문				학술지기사			
	학위논문수	백분율	누적편수	누적백분율	기사수	백분율	누적도수	누적백분율
1968	1	0.71	1	0.71	-	-	-	-
1969	-	-	-	-	1	0.82	1	0.82
1970	-	-	-	-	1	0.82	2	1.64
1971	-	-	-	-	1	0.82	3	2.46
1972	-	-	-	-	2	1.64	5	4.10
1973	-	-	-	-	4	3.28	9	7.38
1974	1	0.71	2	1.42	2	1.64	11	9.02
1975	-	-	-	-	2	1.64	13	10.66
1976	-	-	-	-	1	0.82	14	11.48
1977	2	1.42	4	2.84	1	0.82	15	12.30
1978	-	-	-	-	1	0.82	16	13.11
1979	1	0.71	5	3.55	2	1.64	18	14.75
1980	1	0.71	6	4.26	1	0.82	19	15.57
1981	1	0.71	7	4.96	1	0.82	20	16.39
1982	1	0.71	8	5.67	2	1.64	22	18.03
1983	1	0.71	9	6.38	3	2.46	25	20.49
1984	2	1.42	11	7.80	1	0.82	26	21.31
1985	2	1.42	13	9.22	2	1.64	28	22.95
1986	1	0.71	14	9.93	3	2.46	31	25.41
1987	2	1.42	16	11.35	1	0.82	32	26.23
1988	-	-	-	-	4	3.28	36	29.51
1989	1	0.71	17	12.06	3	2.46	39	31.97
1990	3	2.13	20	14.18	2	1.64	41	33.61
1991	5	3.55	25	17.73	3	2.46	44	36.07
1992	5	3.55	30	21.28	4	3.28	48	39.34
1993	1	0.71	31	21.99	2	1.64	50	40.98
1994	1	0.71	32	22.70	4	3.28	54	44.26
1995	7	4.96	39	27.66	8	6.56	62	50.82
1996	5	3.55	44	31.21	9	7.38	71	58.20
1997	8	5.67	52	36.88	6	4.92	77	63.11
1998	14	9.93	66	46.81	11	9.02	88	72.13
1999	16	11.35	82	58.16	8	6.56	96	78.69
2000	18	12.77	100	70.92	3	2.46	99	81.15
2001	15	10.64	115	81.56	15	12.30	114	93.44
2002	26	18.44	141	100.00	8	6.56	122	100.00



〈그림 2〉 학위논문과 학술지 기사의 비교

추이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학위논문이 학술지 기사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음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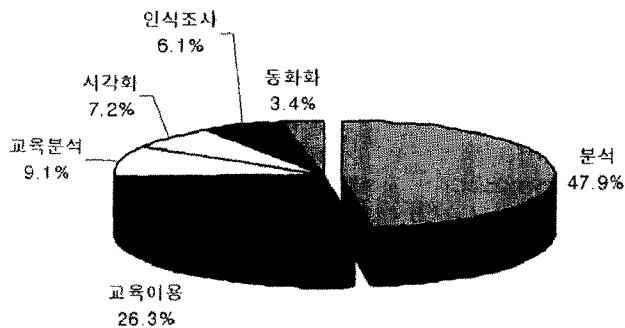
3. 2 주제(분류항목)별 연구의 추이와 경향

다음의 보이는 〈표 3〉과 〈그림 3〉은 내용을

읽고 분석하여 분류한 각 주제항목의 빈도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6 개의 항목 중에 '교육이용'은 전래동화를 언어교육에 이용한 다던가 하는 전래동화의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한 항목으로 한 것이며 '교육분석'은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전래동화를 분석하는데 중심을 둔 연구를 포함시켰다. '시각화'는 언어 또는

〈표 3〉 전래동화연구의 주제(분류항목)별 분포

주제분류항목	분석	교육분석	교육이용	인식조사	시각화	동화화
논문편수 (%)	126 (47.9%)	24 (9.1%)	69 (26.3%)	16 (6.1%)	1 (7.2%)	9 (3.4%)



〈그림 3〉 전래동화연구의 주제(분류항목)별 분포

문자로 된 전래동화를 그림이나 영상, 장식, 복식, 등에 응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분류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인식조사'는 독자를 위시한 사람들이 전래동화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는 바에 대한 조사 연구를 포함하였다. '동화화'는 어린 독자를 위한 설화의 재화를 의미한다.

전래동화연구의 57%가 전래동화자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연구와 교육적 이용을 목적으로 전래동화를 분석하거나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를 분석하는 연구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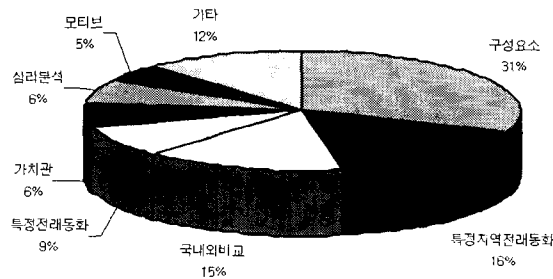
가장 연구빈도가 많은 '분석' 항목은 문학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테마, 표현 등에 관한 분석과 모티브분석,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외국의 전래동화의 비교분석, 특정동화의 분석, 특정지역전래동화의 분석,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분석, 정신분석학적 심리분석 등으로 각 항목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그림으로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학의 구성요소분석 중에는 등장물, 사건의 분석연구가 다수였음이 밝혀졌다. 특정지역전래동화연구(16%)는 거의 모두가 인천대학 손동인교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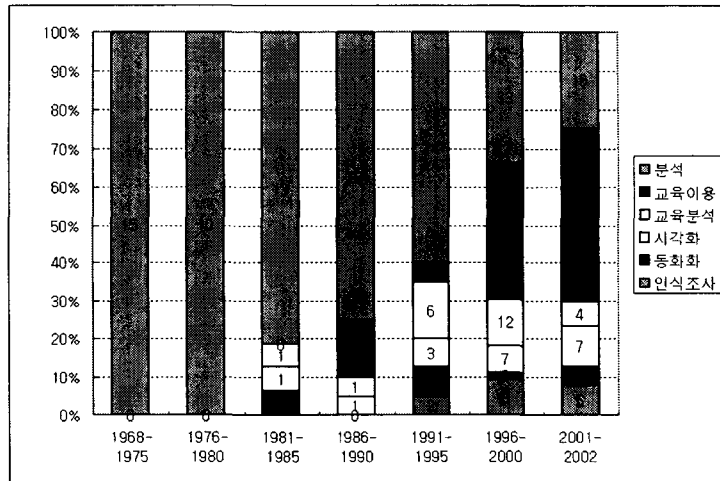
경기지역 전래동화연구였다. 한국과 외국동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15%)는 단국대학의 주종연교수의 한독 전래동화 비교연구가 그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에 보이는 <그림 5>는 5년 단위로 분류항목별 연구추이를 보인다. 표와 그림을 아울러 살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전래동화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각적인 시각의 연구가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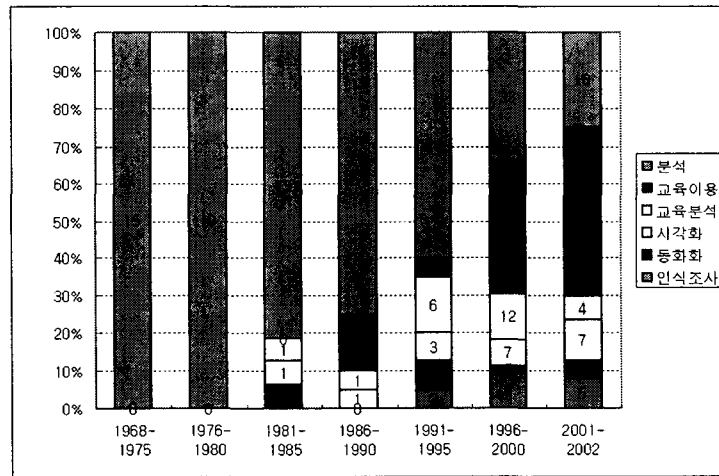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학위논문의 분류항목별 연도별 변화를 그림로 보면 <그림 6>과 같다. 대학원생들이 교육에 관련하여 전래동화를 주제로 연구를 하려는 추세는 1990년대 후반임을 알 수 있다. 전래동화에 대하여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인식조사연구도 1990년대 후반에 전래동화를 교육에서 이용해 보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나타난 연구로 보인다. 또 전래동화를 시가지료화 하려는 연구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전래동화의 동화화 문제는 학위논문 주제로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전래동화연구가 원래부터 동화자체를



<그림 4> 전래동화 '분석' 연구의 세부주제



〈그림 5〉 주제(분류항목)별 연도별 연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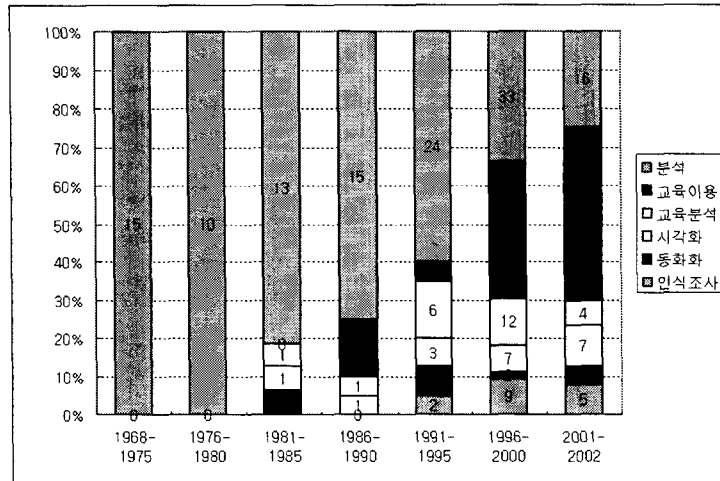


〈그림 6〉 학위논문의 주제(분류항목)별 연도별 변화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이었음을 학위논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림 6〉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석 주제는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 등장물상 등이었고 외국의 전래동화와의 비교분석연구는 김인애의 한국과 독일의 동물신랑신부 이야기를

비교 분석한 박사학위논문이 유일한 연구였다.

다음의 〈그림 7〉은 학술지 기사의 주제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보인다. 이 표에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연구자들이 주로 관심하고 있는 분야는 전래동화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72.13%)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의 내역 중에는 문학 구성요소의 분석, 한국과 외국전래동



〈그림 7〉 학술지기사의 주제(분류항목)별 연도별 변화

화의 비교분석, 특정지역 전래동화의 분석이 주류를 점하였고, 특정동화의 다각적인 분석과 정신분석학적 또는 심리분석이 그 다음으로 연구된 주제였다. 반면에 전래동화를 시각자료화하여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된 문헌은 1건도 없었다.

3. 3 연구자 상황

우리 나라의 전래동화에 관한 연구는 어떤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여 집계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다. 전체 연구문헌 중에 학위논문이 54%이었으며 이를 석사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박사 학위논문은 9건에 불과하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석사학위 논문(93.62%)은 그 중에도 교육대

학원에서 생산된 연구논문이 87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였다. 학위논문이 생산된 계열 대학원의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각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전공영역은 학위논문에 명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불가능하였으나 대체로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국어전공, 유아교육전공의 학위수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사학위논문이 적은 것과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이 많은 것은 전래동화연구가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보다는 교육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학술지 문헌의 저자들이 각각 발표한 논문의 편수를 집계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2편에서 4편 사이의 연구문헌을 발표한 저자는

〈표 4〉 계열대학원 별 학위논문수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예술계열대학원	산업대학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계
논문편수 (%)	87 (61.7)	43 (30.5)	9 (6.4)	1 (0.7)	1 (0.7)	141 (100)

〈표 5〉 논문편수에 따른 저자수

논문수	1편	2편	3편	4편	14 편	33 편
저자수	52	8	1	1	1	1

10명이고 그들이 생산한 연구문헌수는 23편이다. 33편을 저술한 저자는 손동인이고 14편을 저술한 저자는 주종윤이다.

이상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기사의 저자사항에 대한 계량적 통계를 미루어 전래동화연구의 연구자 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4. 결 론

해방 이후 발표된 전래동화에 관한 연구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전래동화를 교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들을 구분하고 통계를 내어 연구 유형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연구 유형의 주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구의 전체적 방향과 유형별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래동화연구에서 다루어진 전래동화의 교육적 쓰임새와 기타의 목적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전래동화의 쓰임새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해방이후의 전래동화연구문헌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학술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전래동화연구문헌을 검색하고 본문을 입수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문헌은 일일이 읽어서 논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전

체문헌의 양과 주제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6종류로 나누었다. 그 내역은 ① 순수문학적 구성요소, 양식 등의 분석 ② 교육적 용도를 전제한 전래동화의 특성 분석 ③ 전래동화의 시각 자료화 ④ 전래동화의 교육방안, 활용방안 ⑤ 재화의 문제 ⑥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조사로 하였다. 6개 항목 중 순수문학적 구성요소, 양식 등을 분석한 연구는 전체 연구 문헌의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세부로 분류하였다. 그 세부 항목은 문학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테마, 표현 등에 관한 분석과 모티브분석,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외국의 전래동화의 비교분석, 특정동화의 분석, 특정지역 전래동화의 분석,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 분석, 정신분석학적 심리분석으로 나누었다. 통계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0년대에는 어린이 출판물이 급성장 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앞서서 출판물 붐을 이루고 있다. 전래동화 역시 다양하게 출판됨으로써 교육자료로 이용되는 폭이 넓어졌다. 동시에 전래동화를 이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국어교육뿐 아니라 영어교육을 위해 전래동화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시행하게 된 데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두드러진

연구는 전래동화를 소재로 테마공원을 꾸민다던가, 전통예술의 문양을 개발하거나 복식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전래동화를 시각화의 입장에서 연구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후반부터는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예술계열, 특히 디자인 전공자들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연구한 문헌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우리 나라 전래동화연구의 범주와 정도 및 그 변화추이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전체적 동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전래동화 출판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풀이된다.

2. 학위논문으로 연구된 문헌은 특히 1998년에 많이 나왔는데 석사학위논문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연구가 완성되려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걸리므로 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되는 연구논문이 증가하는 뒤를 이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표 1 및 그림 2 참조).

3. 학술지 기사는 학위논문과 달리 1969년 이후 꾸준히 연구의 명맥이 이어져 오다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후반이후 발표 문헌수가 급증하였다.

4. 주제별 연구의 추이는 문학의 구성요소 분석을 비롯한 분석연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약 48%) 직접적인 교육관련 연구도 많았다(약 35%). 분석항목 중에 가치관 분석과 심리분석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적인 관점의 시각으로 연구된 문헌들이 다수였던 점으로 보면 전래동화가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되는

폭은 더 넓다고 사려된다.

5. 주제별 연구 추이에서 특기할 사항은 학위논문은 최근으로 올수록 전래동화를 이용한 교육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학술지 기사는 그 현상이 심하지 않았다. 또 학위논문에서 시도되고 있는 전래동화의 시각화연구는 전혀 없었다.

6. 학술지 기사의 주종 연구는 전래동화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였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술지 기사의 저자들이 학위논문의 저자에 비하여 연구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더 인정되는 점에서 전래동화연구의 본래의 모습은 동화자체에 대한 분석적 연구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7. 학술지 기사의 총 저자 수는 64명이다. 그러나 단지 한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가 52명에 달한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활성화의 연한이 원인이기도 하겠으나 현재로서 전래동화의 연구자 층은 매우 빈약하다고 평해야 할 것이다.

8. 본 연구의 분석을 미루어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은 연구활성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 분명하며 그 방향은 전래동화자체의 분석에서 이용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또 전래동화의 이용의 분야가 점차로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전래동화의 이용의 주류는 교육에의 이용이겠으나 전래동화의 시각화부분이 실용적 쓰임새가 많으므로 다양하게 연구될 것이다. 설화의 동화화 부분은 아동문학의 작가 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비례하여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고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조사연구는 교육담당자에게나 전래동화작가에게나

필요한 연구이므로 역시 점차로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전래동화연구의 계량적 서지 연구이다. 다른 나라의 연구와 구체적으로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래동화의 이용연구

는 좀더 분야를 넓혀갈 수 있는 여지를 다른 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철학, 법률, 종교 분야에서 그 분야의 목적을 위해 전래동화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Brain Richardson, Summer 2000, 168-175).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석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기사 데이터베이스
 국회도서관 석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기사 데이터베이스
 베텔하임, 브루노. 2000. 『옛이야기의 매력 1, 2』. 서울: 시공사, 2책.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525p.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10』. 서울: 평민사, 1988-1993. 10책 (임석재 전집)
 장휘숙. 2002. 『아동발달』. 서울: 박영사, 484p.
 전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3. 『협의회편람』. 동협의회. 68-71.
 최인학. 1968. 『동화의 특질과 발전과정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석 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지 기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8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 교실, 1980-1988. 82책.
 한국출판문화협회. 2000. 『한국출판연감 2002

자표편』. 서울: 동협회.
 Bettelheim, Bruno. 1975. *The uses of enchantment*. New York Random House, 328.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 ERIC. US DOE,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 1966-
 Grimm, Brothers *Children's and household tales* vol. 1. 1812 ; vol. 2. 1814
 Lurie, Alison. 1990. "Our controversial folktales" *Storytelling magazine*, (Fall): 14-18.
 Purcell-gates, Victoria. 1989. "Fairy tales in the clinic: Children seek their own meaning"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20(4): 249-254.
 Richardson, Brain. 2000. "Recent concepts of narrative and the narratives of narrative theory." *Style*. (Northern Illinois Univ., Dekalb) 34(2): 168-175
 Sullivan, C. W. 2000. "Introduction" *The Lion and the Unicorn*, 24(2).